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주거비 인상

市, 7월1일부터 590명에 月30만원씩...10.3% ↑ 노사민정協 합의·시의회 심의 거쳐 1회 추경 확보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비 인상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9일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인 GGM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거비 인상을 결정하고 추경에 7천300만원을 더해 올리는 주거비로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은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해 민선 8기 시작 직후 212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해 최대 597명에게 매월 27만2천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세수 부족 등으로 광주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최우선 고려한 것이다. 또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광주시는 주거비 인상과 관련해 노

사민정협의회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대리 이하 근로자 및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과장급 근로자 590명에게 월 3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거비 지원 외에도 빚그림산단에 노사 상생 및 근로자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센터와 개방형체육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또 국·시비, 기업 부담금으로 조성한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매년 근로자에게 문화지원비 15만원과 건강검진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2020년 입주 예정인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내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300호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 GGM에 안정적인 노사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한 노사 상생과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캐스퍼로 도약한 GGM은 올 7월부터 하반기에만 1만7천대의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GGM근로자들의 주거비 지원은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광주가 꼭 성공시켜야 할 상생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각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시청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서 배우의 꿈 펼쳐보세요”

전남영상위원회, 도민 대상 ‘전남배우’ 100명 모집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전남배우’ 10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배우’ 사업은 지역의 보조출연자를 모집·교육하는 사업이다. 도민 참여를 통해 지역 영상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배우로 선발된 도민에게는 전문 프로필 촬영과 전남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드라마에 보조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보조출연자 역량 강화 등 3회 차에 걸

친 주말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전남 동부권(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과 서부권(목포 미식문화센터) 해관 1897)으로 나눠 각 50명씩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남배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향후 보조출연 기회가 있을 때 활용된다.

전남배우는 전남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연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www.inf.or.kr)에 지원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지역 수요 맞춤 ‘동행 일자리’ 본격화

道, 7개 시·군 총 10억 지원...200여명 취·창업 기대

전남도는 9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도록 하기 위해 ‘2024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남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추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다. 시·군,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시·군 대상으로 교육훈련, 창업·장직, 취업 연계, 기업

지원, 산단 환경 개선, 기타 일자리 사업 등 6개 분야 일자리 사업을 공모, 심사 거쳐 시·군 특성이 반영된 7개 시·군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력 양성 사업 ▲원도심 활성화 창업 지원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케이(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이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00여 명이 취업·창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나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김지사 “친환경 농수산물식품 산업 체계 갖춰야”

원재료 생산·가공식품 연구·제품화 기본계획 수립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친환경 농수산물 원재료 생산부터 맛과 기능성 등 가공식품 연구개발, 제품화 노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식품산업 체계를 잘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전남이 맛과 품질이 좋은 친환경식품 원료를 잘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제품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

라, 민간에서도 품종 개발과 가공식품 연구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현장 우수 사례를 잘 발굴해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장에 가보면 농수축산업 신제품 개발 사례가 많고 기존 제품도 좋은 것이 많다”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식품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의 경우 도내 연간

물김 생산액이 5천억원을 넘어서고 가공물 수출도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해 앞으로 2조-3조원 산업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모든 농수산물식품도 전남에서 직접 가공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매년 농수산물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나무를 50년 키우면 멋진 명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나무 주숙련이 50년간 자연 친화적으로 잘 조성한 것을 보고 정원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

록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20대 젊은 세대들이 이를 실천하면 70대에 세계적 명품술이 생긴다. 우리 세대에 가능한 얘기”라고 명품술 조성을 강조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도 관련, 김 지사는 “지역 대학 유학생의 특화비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4월 영농철 이전에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모두가 전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유기농 생태마을’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전남도, 10월28일까지 전국민 대상

전남도는 9일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유기농 생태마을을 무대로 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오는 10월28일까지 7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개인이나 단체(4인 이내)로 생태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매력 있는 콘텐츠 확보와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홍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 소개, 주변 숲은 관광지 발굴,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과정, 도시민 대상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신청은 이메일(dor87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 발표는 12월3일 예정으로 전남도 대표 누리집에 발표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 1편(500만원), 우수상 3편(각 300만원), 장려상 6편(각 100만원)을 선정해 12월에 전남지사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0%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읍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 지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상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등센터별지점 062)361-4472~4 |
| 와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